



*Jumpa lagi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_Bethany Home, 11월의 말레이시아

김현진 - Jake  
조수영 - Sue  
윤하림 - Halim  
박온유 - Annie  
신인하 - Ina

## 11월의 말레이시아

### 1. 수업(Class)



베다니 홈에 온지 3주 정도가 지나고 11월이 되자 우리는 이곳에서의 수업도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곳 시스템을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 활동을 진행하는 것 만으로도 벅찼던 나(ina)는 이제 점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여전히 대화는 원활하지 않고 어제 가르친 것을 오늘 거의 까먹는 아이들이지만, 심지어 매일매일 알려줘도 내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행복해졌다.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담당을 정해서 그 수업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가 각자 맡은 수업에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한 덕분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현진(Jake)의 지도 아래에 진행 됐던 태권도 수업은 (비록 두 번밖에 못했지만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발차기 찌르기 등 장난을 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먼저 몸을 풀 우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수업을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 그들 옆에서 함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을 향해 'Boleh (할 수있다)'를 외치던 우리들의 목소리와 '어이' 기합을 넣던 아이들의 목청 그리고 있는 힘껏 발차기를 하던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노래 수업은 수영(sue)의 지도 아래에 진행 되었다. 지난 달에 함께 불렀던 '올챙이송'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곰 세 마리'와 '작은 별', '둥근 해가 떴습니다' 를 말레이어와 영어로 번역했으며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간단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사의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수업에 추가했다. 몇 주간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 처음에는 쉽게 따라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드디어 입을 움직이며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알려준 노래를 기억했을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다. 쉬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 수업은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에게까지 매우 인기가 좋았다. 나중에 우리가 베다니 홈 활동을 정리할 때 여러 선생님들은 노래가사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수업 마지막 날 노래수업을 진행했던 모든 반에 '올챙이송' 가사와 그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 그 곳에 선물했다.



### Art class

내가 맡았던 미술수업은 5A, 6A 반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됐다. 종이를 찢고 풀을 붙이며 아이들과 부채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한국 전통 도깨비를 색칠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수영(sue)과 현진(Jake)이 국내 훈련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피카소 퍼즐수업을 이 수업에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기도 했다. 중에는 손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은 학생도 있었지만 다행히 반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아이들 옆에서 도와주며 수업을 완성해 갈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했던 피카소 퍼즐이 기억에 남는다. 한복을 입고 서있는 나를 보고 얼굴과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린 다음 그것을 모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을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자신이 그린 그림이 큰 그림의 부분이 되어 멋진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을 본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 Cooking class

일주일에 한번씩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는 요리수업은 온유(annie)가 담당했다. 주로 쿠키나 빵을 구웠는데 사실 수영(Sue)을 제외하고는 베이킹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였지만 '맛있는 재료는 듬뿍, 양은 감으로'라는 나름의 신념을 지키며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다. 때로는 아리송한 맛의 쿠키가 완성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던 아이들 그리고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던 선생님들 덕분에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수업을 맡은 온유도 준비하는 것부터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먹기까지 어느 하나 신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으며 요리수업에 대해 만족해했다.



## Dance class

별 뜻 없이 시작했던 댄스수업이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공연준비로까지 이어져 버렸다. 각 반에서 춤을 잘 추는 아이들이 뽑혔고 그 아이들과 함께 조거톤 행사를 위해 거의 매일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9월 Deaf Dinner Party에서 했던 꼭두각시 춤과 탈춤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어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동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수업의 특성상 힘들

기도 했지만 꾸준한 연습 덕분에 점차 나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즐거움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온유(Annie)는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해서 그런지 댄스수업의 학생들과 가장 많은 정이 든 것 같다고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Panas(덥다)'를 외치던 후이민,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귀여운 표정을 짓던 후이웬, 귀여운 외모로 우리의 사랑을 받은 키안신, 눈물 많은 감성적인 남자 남생, 애교가 많은 슈까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고마운 아이들. 보고싶다.

**아이들과 같이 한 순간 하나하나 잊지 못할 것이다.**



## 2. Jogathon



'조거톤'이란 단어가 생소했던 나는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보았다. '장거리 보행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데모행진. 행진이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일정 거리 마다 일정액을 내는 후원자를 찾는 모금방식을 통칭하는 말로 환경 또는 암환자나 결식 아동 등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가 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단

어의 뜻으로 유추해볼 때 베다니 홈 아이들은 물론 다른 기관의 학생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후원자를 모으는 데 그 의의가 있지 않았나 짐작해봤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거창한 의미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가는 첫 바깥나들이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는 '1박 2일'이라는 자체에 더 신이 나있었다. Sue는 항상 보는 아이들인데도 밖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고 자기 전에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얘기도 했던 그 때 기분이 마치 친구들과끼리 수학여행을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처음으로 같이 지내보는 그 날 밤이 지나고 우리는 조거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했다. 불편한 잠자리에 힘들어했던 우리들에 비해 오히려 불평 없이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씻고 이불을 개고 자신의 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 보면서 마냥 어리게만 봤던 아이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 옆집에 살고 있어서 항상 보는 가니스이지만, 잠옷 때문인지 너무나 귀엽고, 내 동생 같이 느껴졌다. 오른쪽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순키.





이제 본격적인 Jogathon을 하기 위해 독립광장으로 출발!

★새벽의 KL 독립광장



해도 아직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아이들과 함께 독립광장에 도착한 우리. 오늘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들은 도로를 통제하는 등 벌써 많은 사람들이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학교 밖으로 나선 아이들과 우리는 모두 신이 났다..



4km 걷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  
주는 센스!!

베다니 흙의 '마이클  
잭슨'(마이클 잭슨 춤  
을 잘 추는 학생. 정말  
마이클 잭슨처럼 행동  
한다)은 오늘도 한껏  
멋을 부렸다.



본격적인 조거톤  
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열  
심히 체조를 하고  
있다.

## Now are you ready?



Jog a thon의 처음 시작은 옛날 자동차들의 퍼레이드로 시작했다. 뒤이어 군악대의 행진을 따라 마라톤 로드를 행진하니 걷고는 있지만, 내(ina)가 여왕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였다. 내 옆에 후이민은 마냥 신나서 볼레! 볼레!(can!can!)라고 외치고 있었다.

Jogathon의 일반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달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뛰기도 했다. 나는 장애를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





Jog a thon에서는 일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저 완주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장.  
 (사실 이건 Jake가 완주해서 받은 상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찍은 사진. 우리는 뒤에 있을 공연 준비 때문에 조금 뛰다가 독립광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매일 '할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놀림 당하는 Jake가 오랜만에 건장한 청년으로 보였던 순간이었다.) 덥고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완주를 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Ina)까지 덩달아 기뻐다.

마라톤을 마치고 도착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순서는 베다니 홈 아이들과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비롯한 갖가지 퍼포먼스. 우리는 우리가 선보일 부채춤 보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몇 주 동안 함께 연습한 아이들의 한국 전통 춤 공연이 더 기대가 됐다. '아이들이 혹시 동작을 잊어버리면 어

짜지. 끝나는 부분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니 무대는 왜 그렇게 넓어 보이던지. 아이들 볼에 연지근지까지 찍어주며 무대를 기다리던 우리는 곧 공연이 시작하자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큰 실수 없이 공연을 선보였고 사실 그런 작은 실수들은 우리 눈에는 한없이 귀엽게 보이기만 했다. 온유(Annie)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 너무나 잘 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웠고 우리가 몇 주간 연습했던 그 시간들이 뿌듯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사실 아이들은 너무나 잘 해주었지만 우리 부채춤 공연에는 정말 실수가 많았다. 준비할 시간도 너무 짧았고 설상가상 우리 전에 중국인 팀이 부채춤을 공연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춤이 더욱 비교가 됐기 때문이다. 온유(Annie)는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많이 부족한 우리에게 항상 박수 쳐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이곳 생활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



베다니 흠의 아이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봉사자들과의 단합을 위해 KL의 야경을 감상하고자 차이나 타운으로 gogo!



우리는 같은 곳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실 모두 다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날 우리는 밤 늦게까지 베다니 홈에 왜 왔는지 이 곳 생활은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다. 수영(Sue)은 이번 조거톤 행사를 통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전보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서 '학교에서 잠깐씩만 보는 것 보단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 3. Special Camp

베다니 홈에 있는 동안 가장 큰 행사라고 과언이 아닌 'special캠프'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게 됐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캠프는 봉사자들과 장애 아동들이 짝이 되어 장애물 경기는 물론 모든 생활을 함께 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다른 팀으로 배정되어 각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때까지 별로 친하지 않았던 학생들과 짝을 이루게 된 우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웬지 곧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날짜	11/20	11/21	11/22
일정	짝, 팀 나누기 Mini special Olympic	Obstacle course 댄스파티	정글 트래킹 Hot spring



우리는 캠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주로 다양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첫 날, Mini olympic은 실내에서 아이들과 봉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주로 마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봉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밀어주어 코스를 빨리 돌아오는 팀이 이기는 경기 같은. 우

리가 보기에는 무척 간단한 게임도 몇 있었지만 그것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아이들을 기다리고 응원하면서 또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 배워가는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살짝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한 마음에 '빨리, 빨리!'를 외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마냥 그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자체가 너무 예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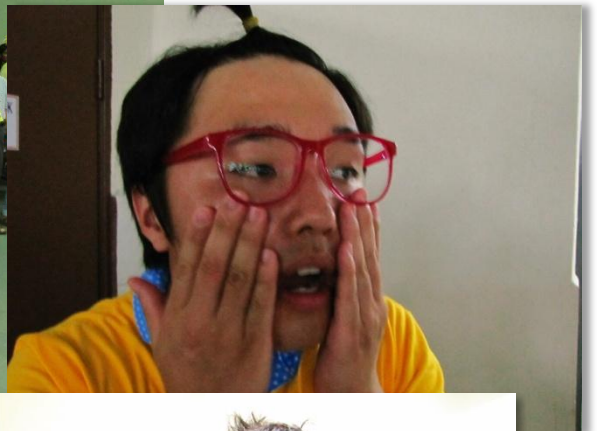


보였다. 아마 다른 봉사자들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지 알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내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 방식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캠ป์ 이틀날, 우리는 이 곳의 무더운 날씨를 실감했다.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obstacle course를 팀 별로 진행했는데 구름사다리 건너기, 줄을 잡고 물 건너기,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온유(Annie)는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이걸 정말 애들이 할 수 있어?'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한 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코스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들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옆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그



리고 아이들 모두 그것을 시도하려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날의 일정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혼자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바지를 걷고 물 속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두 세 명의 남자 봉사자가 한 아이를 붙잡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그 코스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한 팀의 조장을 맡았던 현진(Jake) 역시 자신의 팀원들을 위해 그 날 무척이나 고생했다. (자신의 무게에 두 배가 넘는 학생들을 들 때는 버겁기도 했지만)



## 즐거운 추억 만들기!!



이튿날 저녁에는 그 때까지 팀 별로 이루어졌던 모든 경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다. 1등을 했던 나는 즐거운 기분 때문인지 덤고 고생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릴 적에도 자주 받아본 적 없는 메달과 상장에 나는 마냥 그 순간이 즐거웠다. 반면 8등(꿀등)을 한 운유(Annie)와 7등을 한 현진(Jake)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팀장을 맡았던 Jake는 마치 그 등수가 자기 때문인 것 마냥 팀원들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Annie는 마냥 1등을 한 나의 상품(과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장 수여식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즐거운 파티가 시작되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한 스태프들은 댄스,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준비해 더욱 행사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우리도 그 날 밤을 위해 새로운 댄스 공연을 준비했다. 지금까지는 한복을 입고 전통적인 춤만 쳤었는데 그 날은 신나는 분위기에 맞춰 상큼한 노래와 동작 그리고 감쪽한 분장까지 더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마 사람들은 머리를 묶고 빨갭게 볼터치를 한 Halim의 모습에 놀라지 않았을까) 수영(Sue)는 '파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캠프가 끝나면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실감이 가지 않았는데 파티 덕분에 잠시나마 그런 기분을

있고 마냥 아이들과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었다'며 마지막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 Jungle tracking



마지막 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정글 트래킹(jungle tracking)을 하러 산에 올랐다. 그 프로그램에도 한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빈 통에 벌레들을 담아오는 것이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를 잡아오는 팀이 이기는 조금은 황당한 미션이었다. 봉사자와 학생들은 같이 정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누군가는 신나서 또 누군가는 무서워서) 기뻐하면서 모두들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다. Annie는 산에 오르는 것을 힘들어 하는 짝꿍 학생을 챙기느라 벌레를 잡는 것은 차마 신경 쓰지도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내가 볼 때, Annie의 짝꿍은 참 쉽지 않은 학생이었다. 뭐든 봉사자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스스로 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았다. Annie도 그런 짝꿍을 처음엔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이를 동안 정이 많이 든 탓인지 둘이 붙어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행스럽게도 내 짝꿍은 정글 트래킹에 아주 능숙했다. 오히려 나를 챙겨주기까지 했다. 뒤쳐지는 나를 기다려 주고 벌레 위치도 알려주고 덕분에 우리는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Jake와 Halim은 여러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벌레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글 트래킹이 끝나고 우리는 더위를 씻으러 수영장이 있는 Hot Spring으로 갔다. .  
아이들과 첨벙첨벙 한바탕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서로 장난을 치며 신나게 놀았다. Sue와 물놀이를 하던 가니스는 Sue가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면 끝까지 쫓아와서는 나지막이 'sorry'라고 말하며 철저히 복수를 했다. (그 때 가니스 표정은 정말 분노에 차있었다. 뭘 해도 귀여운 아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던 우리는 정말 즐거웠다. 어쩌면 이제 이 물놀이가 끝나면 진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더 신나게 놀았는지도 모르겠다.

물놀이가 끝나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이젠 정말 헤어질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너무 마음이 짱했다. 아이들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으로 가는 버스 내내 '발릭 캄풍(go back to the home)' '금비라(happy)' 라고 외쳐댔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집으로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한 것 같다. 솔직히 조금 서운했다. '어쩌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아쉬운 마음을 꼭 누르고 한 명 한 명 내리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아주었다. 감정은 복잡한데 인사가 너무 쉬워서 살짝 화가 났다. 뭔지 모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얽혀 있었다. 곧 정리하고 생각해봐야 할.

우리는 모두 두 달 간의 이 곳 생활에 대해 각자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정신 지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처음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과 허물 없이 지내면서 사라져갔던 몇몇의 감정들. 그리고 한국과 이 곳의 차이점. 우리는 앞으로 다른 곳에 있어도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등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답을 내릴 수 없는 몇몇의 질문들을 마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통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숙해 지고 폭넓어 졌다는 점이었다. Sue는 'Mr. Jaya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이 쓰다듬어 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며 '베다니 홈 아이들도 우리가 그렇듯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것에 대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솔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Annie는 만일 혼자 말레이시아에 왔다면 할 수 없었을 이 경험이 너무나 소중한 거 느껴진다고 했다. 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 정신지체 아이들과의 만남. 이 아이들 덕분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생겼다고 아이들에게 고마워했다. 앞으로 어디선가 '정신지체'라는 단어를 본다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것 같다. 아마 전보다 많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참 많은 것을 얻어간다. 베다니 홈에서 나는 두 달간을 참 걱정 없이 살았다. 잠시 복잡했던 고민들은 내려놓고 아이들과 뒤섞여 그저 웃고 장난치고 한적한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배워나갔다.



베다니 홈을 마치고 잠시 KL에서 휴식을 취한 우리는 VISA 연장을 위해 2박3일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 여행이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활동지가 될 페낭YMCA로 이동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 하기도 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긴다.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갈지 무엇에 힘들어하고 고민할지 그리면서 성숙해갈지. 기대된다.

이렇게 저의 팀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보고서 끝!



---

글 : 신인하, 박은유

사진 : 윤하림, 신인하, 조수영

Jumpa Lagi, 11 월의 말레이시아